

박봉우 시 연구

-‘나비’의 비상과 좌절을 중심으로-

노 용 무*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나비의 좌절 혹은 또 다른 길의 시작 |
| 2. 나비의 비상, 민족 통합의 길 | 4. 맺는말 |

1. 머리말

박봉우(1934-1990)는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휴전선」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다. 그의 시적 편력 중에는 정신병으로 인한 창작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지만¹⁾ 『휴전선』(1957),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1958), 『4월의 화요일』(1962), 『황지의 풀잎』(1976), 『딸의 손을 잡고』(1987) 등 5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그는 분단의 문제를 시적 영역의 중심으로 구축했으며, 분단 극복을 향한 끊임없는 통일지향성의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한 시인이었다.

박봉우와 그의 시에 대한 논의는 전후 분단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는 박봉우의 시를 1950년대의 역사적 상황에 묶어버리는 제한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정창범, 「박봉우의 세계」, 『나비와 철조망』, 미래사, 1991.

이근배, 「겨레의 아픔 시로 터뜨린 박봉우」, 『시와 시학』, 1992, 여름호.

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문학사나 시사²⁾에서 박봉우를 두고, '전후시단의 주목받는 시인' 또는 '참여파의 전사적 의의'라는 단적인 언급으로 평가하거나, 1950년대에 국한된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³⁾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를 관류하는 시세계의 조명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박봉우의 시세계는 당대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그 중심이 놓여져 왔다. 당대는 전후의 사상단속이 철저하게 진행된 반공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달리 말하면, 남과 북의 냉전은 분명하게 이원화되어 어느 쪽이든 주어진 상황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적대논리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시단은 서정주와 청록파로 대표되는 기성과 신진들이 주축을 이룬 모더니스트로 대별된다. 기성

-
- 2) 오양호, 「전후 한국시의 지속과 변화」1, 『문학의 논리와 전환사회』, 문예출판사, 1991.
 이영섭, 「1950년대 남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2.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2.
 윤여탁, 「한국전쟁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문학과논리』3호, 태학사, 1993.
 유성호, 「1950년대 후반 시에서의 '참여'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1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 3) 이와 같은 관점은 박봉우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논의한 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심선옥, 「1950년대 분단의 시학-박봉우론」, 조건상 편저, 『한국전후문학연구』, 성대출판부, 1993.
 오성호, 「상처받은 '나비'의 꿈과 절망」,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남기혁, 「박봉우 초기시 연구」, 『작가연구』, 새미, 1997.
- 4) 박봉우의 전작품을 대상으로 시세계의 변모양상을 논의한 글은 다음과 같다.
 김익두, 「통일의 삶, 통일의 시학」, 전북민족문학인협회, 『사람의 문학』, 1992 창간호.
 권오만, 「박봉우 시의 열림과 닫힘」, 『시와시학』, 1993 겨울호.
 정한용, 「휴전선에 피어난 진달래꽃」, 『시와시학』, 1993 겨울호.
 윤종영, 「박봉우 시정신의 전개양상」, 대전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회, 『대전어문학』12집, 1995. 2.
 이증호, 「황무지와 지성인의 역할」, 정창범 편, 『전후시대 우리 문학의 새로운 인식』, 박이정, 1997.

시인이 시의 언어적 완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현실인식은 그에 걸맞는 치열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신진 시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대한 시적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치열함을 견지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시적 완성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자각이 점차 구체화되는 김수영의 변모나 분단 현실을 시적 주제로 감싸 안았던 박봉우의 출현, 그리고 50년대 막바지의 신동엽의 등장은 이 무렵의 시단에서 주목할 부분임에 분명하다.⁵⁾

박봉우가 시작활동을 했던 시기는 6·25이후 분단과 4·19 그리고 5·16에 이어 산업사회의 병폐를 드러냈던 70년대와 민주화 운동의 본령으로 자리매김한 80년의 광주에까지 걸쳐 있다. 이러한 시기는 남한 사회의 파행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었다. 박봉우는 남한 사회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민족의 모순과 '생채기'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자 했으며, 현실과 서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시인이자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삶을 마감하는 1990년대까지 일관된 주제를 다룬 점⁶⁾에서 1950년대 이후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당대 현실의 객관적 인식은 무엇보다 냉전의식의 탈각 여부와, 휴머니즘적 지향에 내포되어 있는 민족적 관점이 어떻게 심정적 분출로부터 사회역사적 구도를 동반한 비판적 시각으로 전이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⁷⁾ 그러한 시각은 박봉우 자신이 '황무지적 현대'⁸⁾로 규정한 전후시대로부터 비롯되는 분단 극복을 향한 '아름다운 길'을 찾고자 노력한 점에서 부각된다. '아름다운 길'이란 민족통합을 향한 길이며, 시인의 일관된 주제의식을 따라가는 여로이다. 분단의 문제를 시적 영역의 핵심 주제로 삼은 시인은 '나의 작업은 조국'('잠초나 뽑고')이었기에 평생에 걸쳐 일관된 여로(아름다운 길)를

5) 한수영, 『1950년대의 재인식』, 『문학과 현실의 변증법』, 새미, 1997, 371쪽

6) 이와 같은 점은 그의 유작시(『해저무는 벌판에서』 외 13편)의 경우에도 분단 현실을 다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창작과비평』, 1990 여름호)

7) 박윤우, 『전쟁체험과 분단현실의 시적 인식』, 구인환 외 공저, 『한국 전후문학연구』, 삼지헌, 1995, 78-81쪽.

8) 박봉우, 『신세대의 자세와 황무지의 정신』, 『한국전후문예시집』, 신구문화사, 1961.

보여줄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박봉우의 전작품을 대상으로 시인의 의식이 투영된 '나비'의 여로를 따라가 시인의 시정신 및 시적 변모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나비' 혹은 나비의 '여로'가 박봉우의 시에서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나비의 비상, 민족 통합의 길

흔, 영원한 생명, 마음을 나타내는 나비는 지상에 사는 애벌레에서 용화(蛹化) 단계를 거쳐서 하늘에 사는 날개 달린 나비로 변신하므로 재생·부활을 상징한다. 크리스트교에서 상징하는 나비는 생-사-부활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개체로 인식된다. 그런 맥락에서 어린 예수는 나비를 손에 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⁹⁾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나비의 경우, 빛의 세계를 지향하는 무의식적 매혹을 상징화하거나, 하늘의 세계, 곧 천상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을 암시한다.¹⁰⁾ 이러한 나비의 상징성은 수직성을 기반으로 한다. 나비가 지향하는 하늘과 천상이란 땅과 상위의 대척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비는 인간의 혼이며 생명으로, 자유로움과 발랄함을 그 내적 속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나비의 비상은 인간 혼의 비상을 뜻하며, 인간의 지향성을 충족시키는 내면의식을 필요로 한다. 비상 또는 상승은 인간의 조건을 <승화>시키코자 하는 욕망, 즉 하나의 초월적인 행동이다. 무중력의 꿈은 물질적 세계의 인간을 꿈쩍 못하게 하는 사슬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¹¹⁾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비상의 수직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수평성을 동반한다. 곧 하늘의 세계나 천상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은 땅에서 이륙한다는 의미에서 수직성을 뜻하지만, 갈망하는 대상을 향해 앞으로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수평적이기 때문이다.

9) J. C. Cooper,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까치, 1994, 48쪽.

10)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91쪽.

11) 아지자-올리비에라-스트크릭 공저,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92, 59쪽.

수직과 수평의 교차점에서 비행, 즉 여로(길)의 크로노토프가 나타난다. 문학작품 속에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담고자 할 때 문학 예술 속의 크로노토프¹²⁾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가 용의 주도하게 교차되면서 구조적 전체로서 융합된다. 나비의 여로는 여로의 과정, 즉 나아가는 현재성이 강조되어 길이 진행되거나 여로의 종결을 이루는 곳이 주요 시공간소의 역할을 하는 포괄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로는 당대의 사회·역사적 사실의 포착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방향성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나비는 분단 현실에 놓여있는 신세대로 자처한 시인의 이상과 동경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시인의 꿈은 1950년대라는 가혹한 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꿈을 지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비상하는 나비의 여로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나비의 여로는 해방공간과 6·25, 4·19, 5·16, 그리고 산업 사회로의 도약을 꿈꾸던 70년대와 민주화의 본령으로 대두된 80년의 광주를 아우르는 역사적 공간을 분단시대라는 맥락으로 관류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사투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넛 하늘은 장미빛 무늬로 타는 큰 문의 창을 열어……지친 날
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
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
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붙어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에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

12) 크로노토프(chronotope : 시공간소)는 문학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관계의 연관성을 일컫는 용어이다. 시간과 공간이 인식 작용의 필요불가결한 범주라는 크로노토프의 칸트적 개념을 문학 연구에 도입한 사람은 바흐친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크로노토프는 장르를 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결합 방식 또는 시간과 공간이 사용되는 비율에 의하여 세계관의 차이가 생겨난다. 크로노토프의 연구는 서사 양식의 변모 과정 해명 뿐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 시대정신 파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4, 208-218쪽 참조.

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
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쨌든 표시의
벽. 旗여……

-「나비와 철조망」¹³⁾ 전문

이 작품은 박봉우의 시세계를 '나비' 이미지를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시이다. 행 구분이 없는 연의 형식을 취한 「나비와 철조망」은 '나비'와 '철조망'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나비'와 '철조망'의 이미지는 각각의 의미망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이 시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전자는 한국시문학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1950년대의 사회·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지식인에게 나비는 바다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새로운 것을 동경하는 대상으로서 바다는 우리 문학에서 근대화의 길을 가는 곳에 놓여 있는 상징적 속성을 보여준다. 일찍이 최남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바다'를, 우리가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험과 시련 그리고 동경, 탐색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바다는 우리 문학에서 근대화의 길을 가는 곳에 놓여 있는 상징적 이미지였다. 이러한 바다 이미지에 최승구는 김기림 월선 이전에 나비 이미지를 관련시켜 시를 형상화시키고 있다.

최승구의 「潮에 蝶」은 늦은 가을 바다의 흰 물결을 '꽃'으로 착각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나비의 운명을 형상화한 시이다. 어느 따스한 가을날 '남훈남훈 아득이는 흰 나뭇'은 '삼춘의 행락이 잊치지 못하'여, '호수의 향내에 취하여', '허엿게 이러나는 적은 물결'을 꽃으로 착각하여, 그 물결 속으로 날아든다. 시인은 나비에게 '검은 해조에 숨은 고래는/너를 덤석 삼키려/기다렸다 벌떡 이러나는', '폭악한 파도'가 있는 바다임을 경고하지만, '아름 이슬과 저녁 안개에 연하게된 적은 날개'와 '산과 들에서 피로한' 몸을 한 나비는 결국 '범속한 운명'에 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찰나의 쾌락과 순간의 파멸'로 끝나버린 나비의 운명은 '영겁의 파도'를 간직한 바다로 형체없이 사라져 간다.

13) 박봉우, 「휴전선」, 정음사, 1957. 이하 시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생략.

김기림의 경우, 「바다와 나비」에서 바다를 대하는 근대 지식인의 관점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바다라는 현실에 맞서는 시적 자아인 나비를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시적 자아인 나비는 새로운 것을 동경하는 꿈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순진하고 가냘픈 존재이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근대성이라면 그것을 향한 나비의 모습은 당대 지식인의 존재를 함축한다. 이러한 김기림의 나비 이미지와 최승구의 나비 이미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전자가 근대를 향한 지식인의 내면의식을 형상화한 반면 후자는 시의 하단에 'destruction of art'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나비의 운명과 예술의 파멸을 연관지어 찰나의 쾌락과 그 파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구와 김기림의 나비가 당대 지식인의 초상이었다면, 박봉우의 나비는 공동체적 운명을 함께하는 민족의 염원으로 확대 재생산된다.¹⁴⁾

「나비」의 상징성은 즉물적 이미지로 제시된 김기림의 나비¹⁵⁾, 또는 최승구의 나비 이미지에서 제시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초상과는 달리 「철조망」의 세계와 교직하면서 철저하게 역사화되어 있다. 그것은 후자가 전자를 억압하는 원체함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철조망」이 환기하는 전후현실과 분단상황이

14) 오성호는 박봉우의 「나비」 이미지와 관련하여 『휴전선』을 중심으로 논의의 전개를 한 바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최승구의 「나비」와 김기림의 「나비」가 식민지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좌절당하고 만 한 시인의 유미적 정열과 근대예의 동경을 상징한다면 박봉우는 분단의 현실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시인적 정열과 그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난과 고통을 「피에 젖은 나비」의 이미지를 빌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비」의 이미지는 분단의 극복의 꿈 자체와 그러한 꿈을 지닌 민족 구성원 전체가 겪어야 할 공통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양됨으로써 최승구나 김기림의 「나비」를 좌절케 한 거센 「파도」의 이미지-이 이미지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 달콤한 낭만적 동경과 도취의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는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의 비정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오성호, 앞의 책, 116쪽)고 설명한다. 이점은 「나비」 이미지의 시사적 의의를 조명함과 동시에 박봉우의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집 『휴전선』과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를 중심으로 시인과 「나비」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본고는 「나비」의 여로에 중점을 두어 박봉우의 통시적인 시세계에 맞추어져 있다.

15) 김윤식,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세계 : 「향수」와 「바다와 나비」, 『근대시와 인식』, 시와시학사, 1993, 358-363쪽.

라는 기제 속에서 '나비'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박봉우의 시에서는 두 계열체의 상반된 이미지가 존재한다. 먼저, '철조망'으로 대표되는 '휴전선', '사격수', '카추샤', '병정', '공동묘지' 등의 전쟁과 관련되는 암울한 계열체가 나타난 반면, '꽃', '꽃밭', '과수원', '음악' 등의 생기발랄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표상하는 계열체가 나타난다. 전자가 비극적 현실을 환기하는 시어라면, 후자는 그러한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어라 할 수 있다. 각각 '철조망'과 '꽃밭'으로 대별해 볼 때, '철조망'은 분단 또는 그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암시하며, 남과 북 또는 북과 남을 경계지우는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의 상황을 예시한다. '꽃밭'은 '철조망'이 주는 억압된 현실을 넘고자 하는 시인이 꿈꾸던 이상과 동경어린 세계를 지칭한다. 그런 의미에서 '꽃밭'이나 '음악'은 박봉우의 도덕적 정열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자, 분단의 현실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현실을 판단하는 윤리적 척도라고 할 수 있다.¹⁶⁾ 시인은 '나비'를 '꽃밭'에 보내기 위해 날려 보냄으로, '나비'는 시인의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분신이 된다. 그리고 나비가 끊임없이 '꽃밭'을 향해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나비'의 여로는 시인의 시정신과 대응된다.

시적 화자는 '나비'이며 시인이기도 하다. 시인은 1연과 3연에서 '나비'와 일체가 되어 '나비'의 눈으로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지만, 2연과 4연에서 '나비'와 분리되어 '철조망'을 향한 힘겨운 여로를 관조한다. 이와 같은 시점의 규칙적인 교체 현상은 현실과 서정의 변증법적 융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비'의 절망적 어조를 형상화하여 시인 자신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나비'는 '<꽃밭>'을 향해 날아가는 여로에 놓여 있다. 그 나비의 여로는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며, '모진바람'과 '피비린내 나게 싸'워야 하는 고난의 길이다. 그러한 고난의 길은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하는 여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몇 마일만 더 날면 저 강과 산을 넘겠지만, 이미 '나비'의 날개는 지쳐있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분다.

'나비'의 종착지는 이미 경험했던 '첫 고향의 꽃밭'같은 '<꽃밭>'이다. 그 곳

16) 오성호, 앞의 책, 114쪽.

을 향한 나비의 여로는 '벽'에 막혀 있다. 그 '벽'은 첫 고향의 꽃밭같은 '<꽃밭>'에 이르는 여로 그 자체이다. "벽, 벽……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는 구절에서 '나비'는 '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를 쫓아 날아가는 '나비'는 모진바람과 피비린내 나게 싸운 것,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 수밖에 없다는 것, 목이 마르고 숨결이 가쁘지만 내려앉아 쉴 수 없는 싸늘한 적지라는 것, 그렇지만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벽을 느낀다. 그 벽은 가로막혀 있는 것, 나비마저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철조망을 가리키는 휴전선을 환기시킨다.

山과 山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같은 火山이 일어날것을 알면서 요런 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 하는 쌀쌀한 風景. 아름다운 風土는 이미 高句麗같은 정신도 新羅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 하고 서있지 못할 廣場.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채 休息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 뿐인가.

언제 한번은 불고야말 독사의 혀같이 장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한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罪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山과 山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같은 火山이 일어날것을 알면서 요런 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休戰線」¹⁷⁾ 전문

「휴전선」은 나비와 철조망의 의미망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시이다. 1연에서 시적 화자는 산과 산 그리고 얼굴과 얼굴이 대치되어 있는 어둠 속에서 언젠가는 그러한 대치 상황이 종결될 것이란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17) 「휴전선」, 정음사, 1957.

서도 '요런 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묻는다. 달리 말하면,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즉, '요런 자세'는 '꽃'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요런 자세'란 서로 대치되어 있는 '저어 서로 응시하는' 상황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나비는 '꽃'과 '꽃밭'을 찾아 '아름다운 길'을 날아 간다. 나비는 '아름다운 길'을 날아가는 여로에 놓여 있다. 그러한 여로의 끝은 '꽃밭'이 있는 곳이며, '高句麗'같은 정신도 新羅같은 이야기가 있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이 '끝끝내 하나'인 '風土'이다. 그러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고구려의 정신도 신라의 이야기도 없는 '쌀쌀한 풍경'과 아름답지 못한 '風土' 때문에 '끝끝내 하나'이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다.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하나로 있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진 '하늘'을 나타낸다. 그것은 곧 땅의 문제와 다름 아니다.

땅의 문제는 3연에서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있지 못하는 '광장'과 정맥이 끊어져 버린 상태의 '휴식' 또는 '야위어 가는 이야기'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비의 여로 위에 놓인 '광장'과 '휴식' 그리고 '이야기'는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비정상적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제 한 번은 불고' 일어날 '바람'과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람'과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에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을 수 있고,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도 지금보다도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내는 '아름다운 길'이며 '요런 자세'로 꽃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비의 비행 여로이기도 하다.

섬 하나 없는 바다에 한마리 나비가
날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데로 향하여 어떻게 날아 갈 것인가.
저리도 연약한 나래를 가지고……

모든 아예들로 피어 잠자는 꽃밭으로,
구름밭으로 찾게 해 주십시오

저어 風浪많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한마리 나비를 어서 가게 해주십시오.

-「¹⁸⁾」 전문

‘나비’의 여로는 ‘어데로 향하여 어떻게 날아 갈것인’지 목적지도 방향성도 불투명하게 나타나지만 ‘꽃밭’이며 ‘구름밭’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로는 ‘섬 하나 없는’ ‘풍랑많은’ 바다 위이다. 이것은 ‘모진 겨우살이’를 감내하는 과정이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하는 여로의 궁핍한 현실을 반영한다. 「¹⁸⁾」의 시적 화자는 ‘나비’와 분리되어 그 여로를 관조하며, 열악한 상황에 처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다는 것, 그 나비는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나마 연약한 날개로 애처롭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다’에 빠지지 말고 ‘꽃밭’이나 ‘구름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행위뿐이다.

문둥이도 지애비와 지어미를 죽인 자식도 人肉街이 허술한 어느 골목길... 百度의 高熱에 흠뻑 젖어 매일밤 미친개마냥 허를 넘뜰거리는 계집년들에게도 나비 한마리 쉬어갈 꽃한포기 없는 매정스러운 荒土.

-「俯瞰圖」 1연.

열리지 않아요 창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얀 커튼을 건우어 버리어요 질식의 불모지대에서 화산같이 토하는 1950년대의. 산맥을 넘고 또 넘어 강을 건느는 가시길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렵니까.

-「窓은」 1연.

그만 지는 꽃잎과 같이 흩날릴 아쉬운 날개. 왜 우리는 이렇게도 모든 것에서 버림받았는가. 사랑이나 외로움은 한없이 까다로운 채 살고 싶은 살고만 싶은 날개의 마지막 상채기. 피는 흘러도 봉대를 갈아줄 병실 없는 싸움터에서 아우성 아우성 치는 처참한 풍경을 보는가.

-「死守派」 3연.

‘나비’는 ‘꽃밭’을 종착지로 알고 날아갔지만, 현실은 무난히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의 길이다. 시인은 「부감도」에서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며, 문둥이와 패륜아, 유곽의 여자들로 넘쳐나는 땅의 모습이 ‘나비 한 마

18) 앞의 책.

리 쉬어갈 꽃한포기'조차 없는 '매정스러운 荒土'임을 인식한다. 「창은」의 경우, 창 안과 창 밖의 대별을 통해 열리지 않는 창을 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리지 않는 창을 열기 위한 노력은 창 앞의 커튼을 걷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자 창을 열려고 했을까. 그것은 '꽃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창 밖의 풍경은 '화산같이 토하는 1950년대'를 표상하는 '질식의 불모지대'이며, 그리고 여전히 날아가고자 퍼독이는 나비의 '산맥을 넘고 또 넘어 강을 건너는 가시길'이란 여로일 뿐이다.

이와 같은 여로의 과정은 「사수파」에서 더욱 심화된 '처참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모든 것에서 소외되고 오직 살고만 싶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나비는 '피는 흘러도 봉대를 갈아줄 병실 없는 싸움터'에서 '날개의 마지막 상채기'를 치료하지 못하고 여전히 날아갈 수밖에 없다.

3. 나비의 좌절 혹은 또 다른 길의 시작

나비는 분단시대의 하늘을 날고 있다. 시인은,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늘은 끝끝내 하나이지만 그 하늘을 우러르는 땅은 나뉘어져 있다는 상황을 형상화 하는데 주력한다. 땅의 문제를 하늘에 빚대어 표현한 점은 분단이라는 현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분단의 현실은 뚜렷하고도 잔인한 나비의 여로를 통해 부각된다. 시인에게 있어서 '꽃밭'을 찾아가기 위한 나비 날려 보내기는 이상 세계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모험이기도 하다. 그러한 모험은 온갖 고난으로 점철되어 나비에게 시련을 준다. 나비는 피비린내 나는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낙엽처럼 떨어질 듯 날아가지만 멈출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언젠가 한번은 꼭 불고야 말 '바람'과 '천둥같은 화산'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기에 나비는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는 '바람'과 '화산'이 나타날 때¹⁹⁾까지 여로 위에서 감내해야 하며 땅에 착지해서는

19) 박봉우의 시에 있어서 '바람'과 '화산'은 민족의 통일을 암시하는 시어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이란 수식어로 인해 '바람'은 또다시 닥쳐올 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람'과 '화산' 모두 언젠가는 꼭 한번은 불거나 일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 세계를 보았을 때 나비는 땅에 내려 올 수 있었다.

四月의 피 흘린
여러 흙을 밟아 보면
더러는 의미를 아는
심연의 나무가 서서
잠시 무지개빛의 증량을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는데……
공간은 말없이
황홀하지도 못한 카나리아의
징역 시간을 위해
바람이 되어,
천둥이 되어,
아아 소나기가 되어,
온 육체에 깊이 멎든 것이
<토할 듯, 토할 듯, 토할 듯>
몸부림치는 울타리 안의
밀려 가는 합숙들이
비가, 소나기가 되어
눈보라가 천둥이 되어
꿈 깬 듯한,
四월이 잠든
꽃밭의 의미와
窓의 머연 나무와 목소리.

-「素描1」²⁰⁾ 전문

‘나비’의 비상은 분단현실을 날아갔던 고난의 여로였지만, ‘나비’는 그 여로의 종착지 4월의 ‘꽃밭’으로 내려 온다. ‘나비’가 내려온 4월의 ‘꽃밭’은 분단 극복 또는 휴전의 종결을 예감했던 ‘바람’ 또는 ‘푸른 4월의 전쟁’으로 ‘멍들어 버린 주변의 것들이/화산이 되어/온 하늘을 높이 흔드는 날’(『소묘33』)이기도 하다.

어나고 말 것이란 점으로 현실의 문제인 분단 상황의 종결을 결정 지우는 중요한 동인으로 이해된다. 즉, 현실의 제 조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단의 문제는 휴전의 상황이 종전으로 바뀌는 어떤 힘에 의해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四月의 火曜日』, 성문각, 1962.

그러나 나비에게 있어서 ‘꽃밭’으로 인식됐던 4월은 ‘기막힌 四月’(「소묘4」), ‘너 무나도/잘못 살아 온 火曜日’(「소묘5」), ‘<버리고 싶은 유산>들의/고독’(「소묘 14」)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4월에 대한 인식은 「소묘1」에서 잘 보여준다.

「소묘1」은 ‘창’ 안과 밖 또는 ‘울타리’ 안과 밖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시적 화자는 창 안 또는 울타리 안에서 창 밖 또는 울타리 밖을 관조한다. 「창은」에서 열리지 않는 창을 열기 위해 몸부림 쳤던 시적 화자는 4월이라는 ‘꽃밭’을 발견하고, 창 안의 공간 또한 그 자신이 염원했던 언젠가 꼭 한번 다칠 ‘바람’, ‘천둥’, ‘소나기’ 등이 몰아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언젠가 있을 것이라는 상황은, ‘온 육체에 깊이 명’이 들고 ‘<토할 듯, 토할 듯, 토할 듯>/몸부림치’는 비가 소나기가 되고, 눈보라가 천둥이 되는 증폭을 염원하지만 ‘꿈깼 듯’이 몽롱하기만 하다. 여로의 종착지인 ‘꽃밭’은 여전히 창 밖 또는 울타리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곳엔 ‘四月이 잠든/꽃밭의 의미’와 창 밖의 ‘머언 나무와 목소리’가 놓여 있다. 나비는 4월의 ‘꽃밭’을 찾아 내려 앉았지만 ‘황홀하지도 못한 카나리아의/정역 시간’인 창 안 또는 울타리 안으로 유폐된다. 창 안의 나비는 4월이 여로의 종착지 ‘꽃밭’이 아님을 느끼자 폐쇄적인 내면의 세계로 추락한다.

나는 알면서
나는 몸부림하면서
광상(狂想)의 노래를,
광상의 노래를, 불러야 할
시인의 共和國

-「소묘26」²¹⁾ 3연.

어찌자는 건가
어둠이 쌓이는
무덤가에 서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구름이 흘러가는 心中에
그래도 저항할 것인가
自由地帶에서

21) 앞의 책.

괴로우며
詩人의 革命은
썩트는 건가
窓인 없는 하늘에
남겨둔 꽃씨를 뿌리는 건가.

-「窓이 없는 집」²²⁾에서.

엉터리 詩人들이 3백이고 5백이 되는
이 나라 풍경
제 조국은 좀먹어 들어가도
詩人이라고 히히덕거리고
기묘한 장치들을 한다
망할 놈의 것 침이나 빨고
고함이나 토하고
로타리의 몇 평 되는 잔디밭에서 차라리
素月詩集으로 얼굴을
소녀처럼 가리고 싶다
모든 것을 가리고 싶다

-「地坪에 던져진 꽃」²³⁾에서

시인의 생애에 있어서 정신장애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과 나비의 여로가 중단되었다는 좌절감에 연유한다. 시인은 4월의 '꽃밭'에 대한 상실감, 4·19혁명이 아닌 5·16혁명(?)으로 인한 패배감에 젖어 헤어나지 못하고, "5·16 군사혁명을 맞고부터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자 혁명 주도 세력에 대하여 중립무진으로 질타"²⁴⁾하기 시작한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상징된 '시인공화국'은 예찬과 경멸을 반복하는 시적 화자의 부정확한 목소리를 통해 형상화된다. 그것은 알면서도 부를 수밖에 없는 '狂想의 노래'이고 '엉터리 시인'들이 조국의 풍경을 칠하는 세상이며, 창 밖으로 나아가고자 염원했지만 '창이 없는 집'에 유폐되어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詩를 모르고 어떻게/정치를 하십니까/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시요/詩人을 천대하는 나라"²⁵⁾에서는 시인만세론을 주창하기도 한다. 이러한

22) 『황지의 풀잎』, 창작과비평사, 1979.

23) 위의 책.

24) 성기조, 앞의 책, 144쪽.

25) 「시인을 아끼는 나라」, 『딸의 손을 잡고』, 사사연, 1987.

시인만세론은 “민족의 대흥진을 겪은 전장에서 우리 세대의 자세는 절망과 절규로서 끝나지 않는데 시인의 가치가 부여”²⁶⁾되는 까닭이다.

창 안에 유폐된 시적 화자는 현실과의 괴리를 스스로 조장하면서 세계와의 불협화음을 연출한다. 나비는 여로의 끝이라 생각한 4월의 ‘꽃밭’이 종착지가 아니었기에 여로를 뒤돌아 보게 되고, 여로위의 나침반이었던 둘로 나뉘지 않은 ‘하늘’을 우리를 수밖에 없다.

어데로 가야 하나
어데로 날아가야 하나
피흘리며 찾아온 땅
꽃도 없다
이슬도 없다
녹슨 철조망가에
나비는
바람에 날린다
남풍이
북풍이나
몸부림 몸부림 친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고충빌딩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 가난한 노래다
심장을 앓은
잔잔한 강물이다
바다이다
한 마리 나비는 날지 못하고
피투성이 된 채로
확 트인 하늘을 우선
그리워한다

-「휴전선의 나비」²⁷⁾ 전문

나비는 비상과 좌절을 거치면서 이곳까지 왔지만, ‘어데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는 여로에 놓여 있다. ‘꽃밭’을 향해 날아왔던 나비는 ‘꽃’도 없고 ‘이슬’도 없는 ‘녹슨 철조망가에서’ 부는 바람에 날릴 뿐 자신의 날개로 날아가지 못한다.

26) 박봉우, 「신세대의 자세와 황무지의 정신」, 앞의 책, 369쪽.

27) 「딸의 손을 잡고」, 앞의 책.

그 바람은 '남풍'인지도 '북풍'인지도 모르지만, 나비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바람은 '가난한 노래'이다. 가난한 노래는 '꽃'도 '이슬'도 없는 황지에서 나비의 여로를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암시된다. "한 마리 나비는 날지 못하고/피투성이 된 채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붉은 입술들이
진달래꽃보다 붉게 핀
서울이라는 明洞
어느 한 구석의 땅 한 평
몇 천만 원의 금덩어리라는데.

저놈의 눈과 발은
빛만 들어가는 땅.

이젠 농사고 지랄이고 그만두고
서울에 가서 지계벌이라도 하면서
흰쌀이나 한 봉지씩 사들고
愛國이나 해야지.

-「팔려가는 봄」²⁸⁾에서

문을 열었다
한 잔의 술이라도 있어야 할
밤이다
손님이 와서
얼마냐고 묻는다
그저 웃으며 대답한다
生活인의 기록이
유리에 비친다
외로운 개업
나는 그 곁에서
잠을 못 이룬다
첫 인사도 없이 아득하기만 한
門을 지킨다
개업
한송이 꽃을 들고 올 손도 없다.

28) 『황지의 풀잎』, 앞의 책.

-「외로운 개업」²⁹⁾ 전문.

나비의 여로가 겪인 좌절감은 가난이라는 구체적 체험으로 인해 시인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나비의 여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과 동경의 세계 때문에 잊혀졌고 무관심했던 시인 자신과 가족의 가난이란 현실을 볼 수 있게 했다. 가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인은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팔려가는 봄」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 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궁핍화 현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명동」과 「논과 밭」의 시어는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정책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 구조를 암시한다. 「서울에 가서 지게벌이」를 해야만 「흰쌀이나 한 봉지」 살 수 있는 현실은 1930년대 식민자본주의의 전형적 모습으로 비춰진 이농과 탈농 또는 유이민의 현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³⁰⁾

문인은 가난하다라는 말을 증명하듯 시인의 삶은 자신의 아내마저 생계를 잇기 위해 「외로운 개업」을 맞게 한다. 그러나 「생활인의 기록」이 투명한 「유리」에 남김없이 비추어지고 찾아오는 「손도 없」는 「개업」일 뿐이다. 실제로 시인의 전주시절은 암담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 때의 현실은 가난과 병고를 온 가족이 같이 나누며 단칸방의 사글세를 셈하기에 바쁜 시절³¹⁾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겨울 포장집의 아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시인은 현실적

29) 「딸의 손을 잡고」, 앞의 책.

30) 이와 같은 현실비판은 농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식인의 무기력함을 고발(「사회부장」)하거나, 대학생들의 허위의식(「인왕산 건빵」)을 벗기거나, 사람 간의 관계가 각박해지는 현실(「한 장의 신문을 들면서」)과 당시의 「먹고 사는」 세대의 문제(「어느 경제학교수의 휴강」)를 풍자한 시들을 볼 수 있다.

31) 이와 같은 전주시절의 박봉우의 생활에 대해서 소재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시인의 서울 下野로부터 歸來한 현실은 몰락하는 ‘아버지의 경제’로 인해 ‘점점 좁아지는 방’속에 갇히고 있었다. 절개 높은 나비가 띄운 날개로 날카로운 이빨의 창조당을 넘나들던 시절을 훨씬 지나온 그 함몰의 세월이었다.” (소재호, 「박봉우시인의 전주에서의 삶, 그 흐린 하늘」, 『시와 시학』, 1993 겨울호, 82쪽) 또한 이병천은 자신의 소설 「휴전선」을 인용하면서, 박봉우 시인의 장례식과 그의 전주에서의 삶을 말한다. (이병천, 「휴전선의 삶과 토막난 생애-전주에서의 고된 삶」,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 『사람의문학』, 1992 창간호)

인 생계 능력마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 환자이기도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소년다운 순수함과 순진성으로 충만한 심성의 소유자”³²⁾였기에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시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생활인의 기록’과 ‘아버지의 경제’를 진솔하게 형상화하여 감동을 자아낸다.

내 생활은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풀잎들이 이슬맺은
강이 흐르는 언덕길을
내 딸의 말을 배우며
내 생활은.

혁명도 자유도 독립도
사랑이거나 눈물도
내 딸의
손목잡고
잠시 잊는 시간.

내 생활은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내 딸의 손을 잡고」³³⁾ 전문

시인은 ‘내 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시인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혁명도 자유도 독립도/사랑이거나 눈물도” 지금까지 잊었던 “내 딸의/손목”을 잡는 때, 시인은 ‘잠시 잊는 시간’을 맞이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념이었던 혁명, 자유, 독립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그것들과 상응하는 ‘내 딸의 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시인은 5·18 광주에 대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오로지/침묵으로 참”고, “내가 다시/무덤에 총장로에/

32) 김종철, 「도덕적 관점과 시적 구체성」, 『창작과비평』, 1976년 가을호.

33) 『딸의 손을 잡고』, 앞의 책.

돌아가 사는 날/오랜 역사 앞에/사랑하는 오직 광주를 사랑하는/시인은 노래하리라”(「사랑하는 내고향 광주를 아직은 노래하지 않으려다」) 다짐하기도 한다.

‘내 딸의 딸’은 어린이가 갖는 동심의 세계나 꾸밈없는 순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깊이이며 ‘잠시 잊’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비’의 여로에 대한 전망의 모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 딸의 손을 잡고2」를 읽을 수 있다. 시인은 “수난 많은 우리네 할아버지들을/너와 참되게 읽어보자”라는 구절에서 ‘슬픈 것’은 감추고 ‘아름다운 것만 들어내어’ 딸에게 전하고자 한다. ‘우리네 할아버지들’의 역사를 ‘참되게 읽어보자’는 ‘고궁의 뜰 앞에/영원한 속삭임’(「사랑의 이야기」)을 느끼는 것이고,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휴전선」)가 있는 ‘신라 천 년의 꽃구름이 우리의 보랏빛 가슴 속에 충만히’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성의 ‘신화’ 속에 펼쳐진 ‘옛날같은 그리움’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나비’의 여로는 또 다른 길의 시작을 준비한다.

신화는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자 현실적이고 유효한 세계 속에 살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표현³⁴⁾이고, 현대 과학에 의해 생겨난 추상적이고 단절된 지식과 현실에 저항하며 고귀한 진실과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 그리고 고대의 지혜와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³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상대성과 무방향성에 의해 야기된 긴장과 불안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신화가 갖는 절대성과 하나의 방향성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창조적 행위들이 시간의 시론에, 곧 태초에 행해진 것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어떤 원초적 사건을 다시 가져와 반복하는 것이고, 신의 신성함을 뜻하는 영원성을 현재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³⁶⁾ 남한의 격동기를 쉬지 않고 날아왔던 ‘나비’는 “새 천년의 흰구름이 포도처럼 열려가는/문”(「고궁풍경에서」)을 향해 다시 날개를 여미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딸의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나비’의 여로를 조망할 수 있었다. 좌절 후 찾아든 되돌아 봄의 깊이는 고구

34) KK. Ruthven, 김명렬 역, 『신화』, 서울대출판부, 1987, 23쪽.

35) 최동호 편, 『새로운 비평논리를 찾아서』, 나남, 1990, 147쪽.

36) K. Hubner, 이규영 역, 『신화의 진실』, 민음사, 1995, 186쪽.

려와 신라의 천 년을 불러들이지만 ‘꽃밭’을 찾아 날아갔던 여로의 또 다른 모습일뿐이다. 현대사의 현장을 피 흘리며 날아온 ‘나비’는 또 다른 여로 위를 날고자 하나 현실의 조건이 허락하지 않았고, 현실을 넘어서 수 없었던 시인의 이상과 동경은 신화의 세계에서 ‘새로운 천년’을 노래하지만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윤희가 가능한 영원한 영혼의 이미지³⁷⁾인 나비는 딸의 손을 잡을 때 부활을 기도한다. 시인은 ‘내 딸의 말’과 ‘역사’를 배우며 ‘슬픈 것’-피에 젖은 시인의 나비-을 탈락시킨 ‘아름다운 것’을 딸에게 전이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마치 프시케(Psyche)가 에벌레 생활을 마친 뒤 자기의 묘지인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부활하는 고난의 여로와 같은 형국이라.

4. 맺는 말

본고는 박봉우의 시세계를 고찰하기 위해, 시인의 의식이 투영된 ‘나비’와 그 여로를 중심으로 시정신 및 시적 변모 양상을 살펴 보았다. 시인의 전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나비’ 혹은 나비의 ‘여로’가 박봉우의 시에서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박봉우와 그의 시에 대한 연구작업은 문학사나 시사에서 중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였으며, 개별 연구성과는 1950년대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인의 전작품을 대상으로 한 몇 편의 논의를 제외한다면, 1960년대 이후의 후기시에 대해서는 문학 외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만으로 박봉우 시인을 규정하기엔 한국현대사의 현장에서 몸부림쳤던 그의 그늘이 너무도 깊다. 이러한 시인의 궤적은 나비의 여로에 적실하게 드러난다.

나비는 시인의 이상과 동경의 세계를 함축하는 이미지이다. 시인은 나비에 기대어 자신이 꿈꾸었던 ‘꽃밭’이란 유토피아를 찾기위해 ‘나비’를 날려 보낸다. 나비가 날아가는 여로는 당대의 사회 역사적 사실의 포착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방향성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나비의 여로가 내포한 시공소는 해방공간

37) 아지자·올리비에리·스트크릭 공저, 앞의 책, 199쪽.

과 6·25, 4·19, 5·16, 그리고 산업사회로의 도약을 꿈꾸던 70년대와 민주화의 본령으로 대두된 80년의 광주를 아우르는 역사적 공간을 분단시대라는 맥락으로 관류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여로위의 나비는 피에 적신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날아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그것은 여로의 종착지 ‘꽃밭’을 향한 시인의 열정이며, 분단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식인의 비판의식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꽃밭’을 향해 날아왔던 나비는 4월의 ‘꽃밭’으로 내려 앉지만, 그것은 시인이 동경했던 이상 세계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이 소각되었을 때, 시인은 폐쇄적인 내면의 세계로 침잠한다. 여로의 중단에 대한 좌절감은 군사독재 정부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정신병을 배태했지만, 현실의 가난과 더불어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천착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민족 통합을 향한 나비의 여로가 낭만적 속성을 띠고 있다면 현실의 중압감을 주는 가난과 사회적 현실은 구체적으로 다가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진솔한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시인은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자신이 평생에 걸쳐 ‘아름다운 길’을 찾고자 날려 보냈던 나비의 부활 또는 재생을 예감한다. 온갖 고난의 길을 날아 왔던 나비의 감내는 모진 세월을 이긴 뽕데기가 되어 딸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성의 ‘신화’ 속에 펼쳐진 ‘옛날같은 그리움’의 세계이고, 여기에서 ‘나비’의 여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휴전선』, 정음사, 1957.
-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백자사, 1959.
-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 『4월의 화요일』, 성문각, 1962.

- 『황지의 풀잎』, 창작과비평사, 1979.
 『딸의 손을 잡고』, 사사연, 1987.
 『나비와 철조망』, 미래사, 1991.
 『해저무는 벌판에서』 외 13편(유작시), 『창작과비평』, 1990 여름호.

2. 2차 자료

- 고 은, 『1950년대』, 청하, 1989.
 권오만, 「박봉우 시의 열림과 닫힘」, 『시와시학』, 1993 겨울호.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4.
 김운식,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세계; '향수'와 '바다와 나비」, 『근대시와 인식』, 시와시학사, 1993.
 김익두, 「통일의 삶, 통일의 시학」,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 『사람의 문학』, 1992 창간호.
 김종철, 「도덕적 관점과 시적 구체성」, 『창작과비평』, 1976년 가을호.
 남기혁, 「박봉우 초기시 연구」, 『작가연구』, 새미, 1997.
 박봉우, 「신세대의 자세와 황무지의 정신」, 『한국전후문체시집』, 신구문화사, 1961.
 박윤우, 「전쟁체험과 분단현실의 시적 인식」, 구인환 외 공저, 『한국 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1995.
 소재호, 「박봉우시인의 전주에서의 삶, 그 흐린 하늘」, 『시와 시학』, 1993 겨울호.
 심선옥, 「1950년대 분단의 시학-박봉우론」, 조건상 편저, 『한국전후문학연구』, 성대출판부, 1993.
 오성호, 「상처받은 '나비'의 꿈과 절망」,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오양호, 「전후 한국시의 지속과 변화」1, 『문학의 논리와 전환사회』, 문예출판사, 1991.
 유성호, 「1950년대 후반 시에서의 '참여'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1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 윤여탁, 「한국전쟁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문학과논리』3호, 태학사, 1993.
- 윤종영, 「박봉우 시정신의 전개양상」, 대전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회, 『대전어문학』12집, 1995. 2.
- 이근배, 「겨레의 아픔 시로 터뜨린 박봉우」, 『시와 시학』, 1992, 여름호.
- 이병천, 「휴전선의 삶과 토막난 생애-전주에서의 고된 삶」,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 『사람의문학』, 1992 창간호.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영섭, 「1950년대 남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2.
- 이종호, 「황무지와 지성인의 역할」, 정창범 편, 『전후시대 우리 문학의 새로운 인식』, 박이정, 1997.
- 정창범, 「박봉우의 세계」, 『나비와 철조망』, 미래사, 1991.
- 정한용, 「휴전선에 피어난 진달래꽃」, 『시와시학』, 1993 겨울호.
- 최동호 편, 『새로운 비평논리를 찾아서』, 나남, 1990.
- 한수영, 「1950년대의 재인식」, 『문학과 현실의 변증법』, 새미, 1997.
-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2.

3. 번역서

- 아지자·올리비에리·스트크릭 공저,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92.
- J. C. Cooper,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까치, 1994.
- K. Hubner, 이규영 역, 『신화의 진실』, 민음사, 1995.
- KK. Ruthven, 김명렬 역, 『신화』, 서울대출판부, 1987.